

요시다신메이구(吉田神明宮)

신메이구(神明宮)는 지장당(地藏堂)에서 북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산기슭에 노송나무·화백나무 등으로 둘러싸인 사충(신사 경내의 숲)에 있다. 이끼 낀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다시 마이도노(舞殿, 무악을 행하는 건물) 뒤 돌계단을 오르면 본전이 있다.

구조는 산칸샤(三間社)의 신메이즈쿠리(神明造) 양식이며, 제신(祭神)은 중앙에 아마테라스 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 오른쪽에 하치만다이진(八幡大神), 왼쪽에 하쿠산다이신(白山大神)을 모시고 있다.

야부하라 신사(藪原神社) 명세장(明細帳)에 의하면 하치만샤(八幡社)의 제신(祭神)은 호무타와케노미코토(鰐田別尊), 창립연도 미상.

경내 평수 30평, 신도는 31명이었다. 본전은 메이지 26(1893)년에 새롭게 재건되었는데, 대목수로는 현지 목수 나카무라 손자에몬, 가이토 가네마쓰, 마쓰바라 사쿠지로, 소마토료(袖棟梁) 마쓰바라부에몬(松原武右エ門)이 담당한 훌륭한 건축이다.

창시 연도는 불분명하지만, **분큐 원년(1861) 6월** 지붕공사를 한 무나후다(상랑패)가 있고, 본전 앞 양쪽에 있는 석등에 **덴메이 5(1785) 을사년 9월 길일**이라고 새겨져 있어 그 무렵이 창시였음을 알 수 있다.

본전을 향해 왼쪽으로 5m 정도 떨어져 곤피라곤겐(金毘羅権現), 이나리다이묘진(稻荷大明神), 야사카다이진(八坂大神), 미쓰미네다이진(三峯大神), 우케모치노오카미(保食大神),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国主命)를 모신 작은 사당이 나란히 있다.

예제는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세 차례 지냈지만, 지금은 9월 10일을 전후한 일요일에 지내고 있다.

'기소무라 문화재 탐방'

(1986.3.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에서